



2020

사순절 묵상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문 동 교 회

사순절 제 1일_2020년 2월 26일(재의 수요일)

복음으로 길을 열고

마가복음 1:1~8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539장)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은 회심과 회개로 시작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재를 이마와 손등에 바르며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나는 흠이요 먼지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그 삶의 여정에 주님이 계시는지 조용히 가다듬어 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복음으로 열고 담대한 믿음과 지치지 않는 영성으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집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길입니다. 평화와 사랑을 통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길은 세상의 권력이 집약된 로마제국의 전쟁과 정복을 위한 길을 대치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이루어 가는 새로운 나라를 향한 복음의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재의 수요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참된 길에 참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절제와 성찰의 시간을 쌓아 가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사순절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정에 함께하게 하소서.



하늘 길이 땅으로

마가복음 1:9~11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407장)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마가는 간결하게 보여주지만, 그 의미가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이 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길이 열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비둘기는 이제 문을 열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Messenger)였습니다. 마가는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고난의 길을 넘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가 걸어가야 하는 복음의 길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마가복음 1:12~15/ 십자가 그늘 아래(415장)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끝에 마치 따뜻한 봄날 정원에 우박이 내리는 듯한 반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허허벌판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지나 광야의 거친 벌판에 홀로 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자비한 세상에 맞서서 진리와 구원의 복음으로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쟁을 온전한 승리로 마치십니다.

들짐승이 우글대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느슨하고 안일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행진에 함께 참여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서 진리를 외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에 참여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가자

마가복음 1:16~20 / 예수 따라가며(449장)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시몬(베드로)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갈릴리의 일상적 풍경이었지만, 당시 포악한 왕 헤롯와 로마의 식민지 억압, 헤어날 수 없는 가난과 꿈꿀 수 없는 절망감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거친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들린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이 힘겹다고는 해도 비교적 익숙하고 안전한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기가 느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그 응답 속에 새로운 다짐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까? 좁지만 기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믿음으로 따라나설 용기를 갖게 하소서.



여기 앉아 있으라!

마태복음 26:36~38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95장)

유월절 마지막 식사인 성만찬, 제자들의 발 씻어 주시는 일과 고별설교(요 14~16장), 고별 중보기도(요 17장)를 마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11명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8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기도하는 장소 근처까지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8명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명에게만 당신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감 없이 다 드러내시고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갔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불 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기도, 봉사, 헌신에 대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혹시 주님이 나를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철저하게 돌아봅시다.

오늘의 기도

나를 아시는 주님. 은밀한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마태복음 26:39~40 / 내 기도하는 그 시간(364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39절의 '조금 나아가사') 세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일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위탁 받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세 명 다 잠을 잡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고백(38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면 놀라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는 표현은 정말 한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한순간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 시간은커녕 짧은 단 몇 분 동안도 깨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동참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잠에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악함을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의 기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마태복음 26:41 / 나 말은 본분은(595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 13:22).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의 원함이 육신을 이끌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을뿐더러 자신의 긴급한 일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워 놀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정하였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어도 밤새워 일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니 몸이 잠에 약해져서 잠에 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으면, 피곤한 몸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원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거기에 따라 육신의 일을 그만두고 영의 일을 할 만큼 내 마음이 확정(시 57:7)되었습니까? 혹시 정욕이나 미움이나 옳지 못한 일에 내 마음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이 불의한 일에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오늘의 기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자고 쉬라

마태복음 26:42~45 / 너 시험을 당해(342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왔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베드로만 깨우십니다. 두 명은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한 시간, 아니 잠시라도 깨어서 당신의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받는 일, 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대단한 일입니까? 감히 나같은 사람을 당신의 기도의 반열에 세워 주신다면 그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세 명만 초청 받았습니다. 나머지 8명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8명에게는 기도하는 일을 아예 부탁조차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명을 탈락시키시고 베드로만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선택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도 주님의 이 요청을 끝까지 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신 주님은 이제 세 명 모두에게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 명 다 포기하시고 더 이상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잠자려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도록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심각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런 신앙적 감동이나 주님의 일과 교회일에 봉사 헌신할 생각이나 소망이 없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각각 제 곳으로

요한복음 16:32 / 내 맘이 낙심되며(300장)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겔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제자들은 제각각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위세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창과 검에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장악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되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벧전 5:8). 사자도 무섭지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이미 겁을 집어먹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바로 사탄에게 삼켜진 바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영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걱정과 근심, 욕심과 이기심, 질투와 시기심 등 두려움의 부하들이 총출동해서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 무차별 공격을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의 판단과 소견대로 살면서 영적 부도 상태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에 겁을 집어먹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뿐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요새시며 방패입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말고 다른 곳에 가려 하지 마시다.

오늘의 기도

오늘 하루, 나의 요새이시자 방패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마가복음 9:9 / 예수 십자가에 홀린 피로써(259장)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갈색 계통일 텐데, 예수님께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 더 이상 희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막 9:3).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두 사람이 누군인지 몰랐습니다. 졸다가 깨어보니 그런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연히 본 것뿐입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역시나 엉뚱한 소리를 했다가 하나님께 경고를 듣기도 했습니다(눅 9:34~35).

예수님께서도 3명의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오늘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그 어떤 간증이나 고백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과해야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내 삶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하심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세상에 얘기하고 증거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증거하게 하소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로마서 6:6 / 예수 앞에 나오면(287장)

‘옛 사람’이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나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용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한 다면서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할 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 사람이 계속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성질, 내 욕심, 내 방탕한 습성과 기질이 살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고전 15:31).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도하면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살아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 계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생각, 내 취미생활, 내 행동 모두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고백이 나오도록 피땀 흘리며 오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15 / 영혼의 햇빛 예수님(60장)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내 모습은 교회 밖에서 드러납니다.

만일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나의 본성과 기질에서 나오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기질과 성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향기가 나는 삶이 되는데, 내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향기가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란 사람이 무슨 향기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악취가 나는 데 그 냄새에 익숙해서 몰랐지요”, “사람들이 코 막고 다니면서 속으로 혀를 찼지요”, “예수 믿는다면 사람이 왜 저래?”,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향기 모조품을 만들어 여기저기 뿌리고는 뽐내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나와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로마서 6:5 /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270장)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야 다시 삽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당신을 내려놓으시는 모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꿈과 소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오는지 자신을 살펴봅시다.

주님께서서는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2:24, 마 16:25). 손해 보고, 양보하고, 베풀기만 하고, 나만 일하고, 저주고, 섬기고, 섭섭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소리치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하고 참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죽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다 안다고 하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예수님을 닮아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케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24~25 / 겐세마네 동산의(457장)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십자가를 당신이 손수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통이자 고난이며 죽음입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 불편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닌, 여기 이 자리에서 복을 받고 그냥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사람은 선교사님들이나 일생을 헌신한 목회자고, 나는 아니라고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저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역, 전도회, 부서에서 일할 때 각가지 힘든 일, 어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나의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입니다.

오늘의 기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욱 힘 있게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소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누가복음 24:5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86장)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니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리 없습니다. 새벽녘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왔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있는 자의 땅에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염려, 근심, 미움, 두려움, 무례함, 욕심과 이기심 등이 있는 곳은 죽은 자의 땅입니다. 그곳을 벗어나서 감사, 기쁨, 용서, 평화, 섬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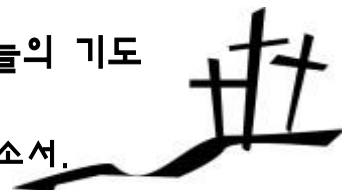
다윗은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와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시편 27편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상황, 죽음의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시 27:2~3)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4~6절)”라고 선포하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살아 있는 사람들, 나를 살리시고 세우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험담, 불만, 비판과 정죄를 하는 장소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 자들의 땅으로 가십시오.

오늘의 기도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두움들을 빛으로 밝히시어 사라지게 하소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6, 마태복음 28:6 / 예수가 거느리시니(390장)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 28:6)”. 오늘 묵상의 말씀에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즉 평소에, 너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당신께서 죽으실 것과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일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암 3:7).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시고 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쉬지 마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다. 내 기억력은 상관없습니다. 진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억하게 해 주시고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방자하게 됩니다(잠 29:18).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면서 잘 하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삿 21:25) 망하게 됩니다(호 4:6).

오늘의 기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여 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24:7~8 / 성령이여 강림하사(190장)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똑 잘라서 한 부분만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들어 놓고도 자기 임의로 해석하거나 생각해서 머릿속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엉뚱하게 대답하고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으로 부족하기만 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귀라고 해서 다 귀가 아닌 것입니다. 들었다 해서 다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가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기억해 보라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하였을 때, 놀랍게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윗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낼 말씀이 내게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고집어내어 주실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매일 묵상함으로 내 안에 저장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저장해 놓은 말씀이 없어서, 기억해 낼 말씀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신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것으로 고난 가운데 등불 삼게 하소서.



허탄한 듯 들려

누가복음 24:9~11 / 아 하나님의 은혜로(310장)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부활의 아침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대단한 경험을 하고 엄청난 은혜를 입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감히’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사실을 전했는데, ‘감히’ 그들 모두, 여인들이 아침부터 허튼 소리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난센스로 여긴 것입니다.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고, 문에 어찌 문턱이 없을 소냐?”며 안 가본 사람이 가서 직접 가본 사람을 이긴다는 우리나라 옛말처럼, 기껏 다락방에나 숨어 있던 사람들이 큰소리를 친 것입니다. 듣지 않았으면서 들은 것처럼 말하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예레미야 2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과연 오늘 내가 말하고 주장하고 논쟁하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맞고 옳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생각,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배짱 좋게 거의 매일 큰소리치며 사람들과 다투고 얼굴을 붉혔을까요? 그리고 왜 그가 틀렸다고 하며 그를 미워하고 외면했을까요?

오늘의 기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소서.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9~10 / 어두운 내 눈 밝히사(366장)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을 때, 열한 명의 사도들의 반응은 아침부터 헛소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무덤까지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달음박질하여 무덤을 둘러보고 난 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비한 일과 기적이 눈앞에 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신앙 생활한 헛수나 직분,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봉사 했다는 언론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고, 그 말씀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밥 먹고, 돌 벌기 위해 일하고, 놀고, 사람 만나 대화하고,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면(이런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서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기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꾸짖으시니라

마가복음 16:14 / 십자가를 질 수 있나(461장)

열한 명의 제자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먹는 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일을 돌보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원수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밥상 차려 주시며 먹고 힘내라고 서비스 해 주셨습니다. “나 살고 싶지 않아요.”라면서 큰 낙심 중에 있던 엘리야에게는 따뜻하게 구운 떡과 시원한 물을 갖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밥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꾸중하고 야단치셨습니다. 밥 먹다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더 나아가 마음이 전부 완악하다고 야단치시는데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라는 자부심만으로 고집 센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사용하신 적 없는 단어들을 쓰면서 꾸짖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서비스로 받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듣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6:29~31 / 샘물과 같은 보혈은(258장)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각각 낙원과 음부로 갔습니다. 거리가 좀 멀기는 해도 서로 간에 얼굴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는 나사로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자기 다섯 형제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자신이 겪어 보니 절대로 와서는 안 될 곳인데, 보나마나 자기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다 음부로 오게 될 것 같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자기처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옥에 와서야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이었던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살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고 쉬운 일 같으나, 천국의 삶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력, 그리고 실천하려는 의지 등등 나의 전 존재적인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변화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천국의 삶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하신 그대에

요한복음 4:48~53 / 오 신실하신 주(393장)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갈릴리 지역 분봉 왕이었던 헤롯의 신하로써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병으로 죽어 가는 고통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하에게 도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의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하가 두 번째 한 요청을 보면, 그는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 달라고 합니다. 처음 그의 믿음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 가는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곧바로 돌아갑니다. 순식간에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큰 믿음이 되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삶 속에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살아 있는 떡

요한복음 6:48~51 / 어저께나 오늘이나(135장)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 즉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인 생명을 포함한 영적인 생명을 위한 떡이십니다.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음식으로 인해 영적 건강이 유지되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빼먹을 수 없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밥으로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입니다. 땅에 속한 음식들과 같지 않습니다. 땅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병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떡은 많이 먹을수록, 자주 먹을수록 건강해집니다. 하늘의 유기농 식품이요, 각종 미네랄과 양분이 살아 있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필수와 핵심으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 취미생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힘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기도

날이 갈수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며 살게 하소서.



레아가 부른 찬송

창세기 29:31~35 / 거기 너 있었는가(147장)

레아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만큼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자녀를 낳는 복을 주셨고 동생 라헬의 태를 달아 버리셨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며 기쁨과 감격에 찬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계속 들어보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과 관련된 일을 언급합니다.

레아는 둘째를 낳고도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셋째 때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레아가 계속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았을 때 레아의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 낳는 일에 대해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만 노래합니다. 드디어 완벽한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송을 들으신 후 기다리셨다는 듯 레아의 태를 잠시 달으십니다. “이제야 드디어 나를 온전히 찬송하는구나. 그래 되었다 좀 쉬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는 지금 어떤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돌리는 나의 찬송이 이 사순절에 드려야 하는 가장 귀한 예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창세기 21:9~16 / 나는 갈 길 모르니(375장)

하갈이 임신한 후, 자기 주인 사라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멸시했다고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세상이 온 줄 안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사라의 아픔을 이해하고, 임심해서 미안해하는) 이 없는 것입니다.

사라의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 있을 리 있었겠습니까? 하갈은 그대로 있다가는 자신은 물론 뱃속의 아이까지 온전치 못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정처 없이 도망 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거기다 임신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인생길이니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된 하갈의 인생에 다시 먹구름이 깃니다. 17세쯤 된 이스마엘이 3살쯤 된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쫓겨납니다. 떡 조금과 물 담은 가죽 부대만 가진 채로 말입니다.

어머니의 성정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지고, 그로 인해 고생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오늘 내 인생길에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최고로 복된 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는지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살펴봅시다.

오늘의 기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을 전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듣고

사도행전 16:23~25 / 구주를 생각만 해도(85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구타당하고 지하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가 계속 흘렸지만 두 사람은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후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노래, 눈물 짜면서 부르는 신세타령 조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불렀던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어둠 가득한 감옥에 찬송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단 한명의 죄수도 시끄럽다 말하지 않고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심금을 울리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찬송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러 내려오셨습니다. 그 제대로 된 찬송, 그 온전한 찬송이 하나님 임재의 길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니 감옥의 터가 진동하였고,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어떤 구속과 억압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장벽과 철문이 닫힌 채로 있겠습니까? 견고한 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찬송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은 어떨습니까? 노래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듯 선곡하고 하나님은 귀 막고 계시는, 그런 노래 부르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을 데려온 한 여인

요한복음 4:39 / 날 위하여 십자가의(303장)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때는 한낮,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며 자기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발산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계신 우물가로 때맞춰 나타났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때,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은 한 남자와 그냥 동거 중에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불쌍해서 만나러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외형상으로는 지극히 타락하고 망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한 갈증을 풀어 주시고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물동이를 던져 버리고는 마을로 뛰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이 부분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떠오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듣고 들은 사람들이 다 우물가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준비된 여인을 예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 제쳐 놓고 만나러 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예수님께서 침묵 중이시라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채무자가 되시오, 빛진 자가 되시오

로마서 13:8 / 나 행한 것 죄뿐이니(274장)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행 20:35). 그러므로 빛지고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복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꾸어 줄 지언정 꾸지 않을 것 이라고 하신 말씀도(신 28:12)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채무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빛진 자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단, 돈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나면 바로 채권자가 됩니다.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섭섭해 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투덜거리며 속상해 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빛진 자의 마음과 자세로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빛졌다는 마음 외에는 갚아 주고 싶은 그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갚아 주려고 꼭꼭 쌓아 놓은 상처, 원한, 분노와 시기 질투 등이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누군가를 향한 채권자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빛진 자 되어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오늘의 기도

사랑에 빛진 자가 되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변의 지체를 돌아보게 하소서.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책망

마태복음 16:16~23 /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379장)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하지 못한 최고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아무도 하지 못한 최악의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책망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받은 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사탄이 베드로에게 알려 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많은 시간을 두고 생긴 일이 아니라, 곧바로 연이어 일어났기에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다가, 곧바로 사탄에 연결되는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분명 그런 순간들이 내 신앙생활 중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분별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늘 깨어 무시로(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것으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공급하는 것으로는 사람의 일, 즉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말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갑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16~17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314장)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냥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분에 넘치게 주시고, 잔이 넘치게 주십니다. 망가지고 형편없게 된 나를 되출시키지도, 추방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헛된 데 다 써버리고 비틀거릴 때, 다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속 베푸십니다. 내 은혜를 왜 그렇게 헛되게 하느냐고, 형편없고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야단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지신 은혜가 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퍼 주시다가 어느 순간 바닥나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바닥나 가는 당신의 은혜의 창고를 보시면서, 더 이상 베풀기만 할 수 없다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주셔도 비워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 나는 은혜를 끝없이 탕진하고 소비하기만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딤후 1:15).

오늘의 기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가 왕 노릇하는 나라

로마서 5:20~21 / 날 대속하신 예수께(321장)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 재판정에서는 정상 참작, 재판장 재량 등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늘어만 갑니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 죄를 지었습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바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말씀을 먼저 율법적인 지식으로 알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알고 나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죄를 덮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더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충격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파괴되고 힘을 잃었습니다. 은혜가 왕 노릇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 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 감사와 겸손과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의 기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더 나아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문 좀 열어다오

요한계시록 3:20 / 나의 생명 되신 주(380장)

“너에게 가느라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였구나. 비난과 조롱과 욕설을 들으면서 그래도 너에게 가는데, 너는 나를 피하여 달아나는구나. 내 사랑 주고 싶어 너를 찾아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단다. 이래도 나를 안 만나 주려느냐!”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내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계심을... 아니 번개와 천둥 같은 호령소리로 이 무지하고 완악한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렇게 문만 두드리고 계셨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밖에 세워 놓고, 따뜻한 집 안에서 빈둥거리고 여유작작하였습니다. 내 영혼의 빈곤함에는 관심도 없었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만 걱정하며, 사랑의 주님이라면서 왜 미리미리 알아서 채워 주지 않는 거냐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보니 진짜 좋으신 나의 친구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돈, 건강, 시간, 어떤 계획, 습관, 취미생활, 내 습관과 기질,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은밀한 것들까지 다 문을 열어 주님께서 들어오시게 합시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까

요한복음 11:32~35 / 낸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484장)

나사로가 죽어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문상하러 오신 것일까요? 이미 장례는 다 끝났는데, 뒤늦은 조문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을 바깥까지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아픈 마음을 드러냅니다. 일찍 오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라는 등, 이런 저런 얘기를 늘어놓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대답해 주십니다. 마을 입구에 서서 그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울다가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한 얘기는 마르다와 같지만,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고 불쌍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혹시 지금 시퍼런 논리와 이론과 어쭙잡은 지식, 또는 불평과 불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도 논리와 이론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눅 18:9~14).

오늘의 기도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것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주는 사람이 없더라

누가복음 15:13~16/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412장)

둘째 아들이 돈을 챙긴 다음, 자유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나옵니다. ‘허랑방탕(13절)’, ‘허비하더니(13절)’, ‘궁핍한지라(14절)’, ‘주는 자가 없더라(16절)’입니다. 허랑 방탕은 그의 기질이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와 영적 품위를 지키는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늘 나라의 고상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비하는 삶이 됩니다. 자기는 쓸데 쓰고, 할 일하고, 할 말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습니다. 거둘 것이 없는 삶입니다. 자신은 여기저기 많이 베풀고 뿌리고 심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헛된 곳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온 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타서 재가 될 것입니다. 그토록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던 사람이 낙심하여 쓰러지고, 안티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손길이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가 빈궁해진 것을 보고 말입니다. 허비하는 삶이었으니 진실한 교제와 마음을 내 놓는 사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삶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사랑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39~44 / 내 영혼이 은총입어(438장)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사랑의 길, 그 눈물의 길을 경건한 마음으로 따라 갑시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이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대상입니다. 그들 중에 나와 연결이 되어 사랑을 베풀 일이 생기면,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쉽습니까? 물론 쉬운 사랑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 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정도의 사랑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낄 자격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 기도 하셨습니다. 슬프고, 고민되고, 죽을 지경(마 26:38;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전에 앞으로 해야 할 일 때문에 고민이 되어 죽을지경이라니 말입니다.)이라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하소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아픈 길입니다.

오늘의 기도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앞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1~3 /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315장)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참아주고, 양보해 주고, 예의를 지키고, 험담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 성내지 않고, 시기 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3:4~7).

예수님께서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공생애 3년 동안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유만만하게, 웃으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과 상관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구나!’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은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죄로 인해 사탄의 손아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자, 첫 번째의 길이고,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자 소망입니다.

오늘의 기도
오래참고 인내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복

로마서 5:9~11 / 내 주의 보혈은(25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보혈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고 못 지켰는데도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즉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기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을 단 하나만 어겨도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마지막 하나를 어길 경우 율법을 다 안 지킨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무서운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그 어떤 신앙적 행위나 노력으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요일 3:8)”라고 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이 다 치러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 여전히 거짓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아 신음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오늘의 기도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이사야 59:1~2 / 내 평생 살아온 길(308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하여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손이 짧아서(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거나 우리의 기도소리가 약해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소리가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죄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시거나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짓값을 치러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짓값은 사망입니다(롬 6:23).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영적 사망입니다. 영이 죽었으니 몸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몸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휘둘려서 어둠 속에서 병들고 신음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옵시다. 예수님께서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롬 10:10).

오늘의 기도

나의 죄를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눈길

누가복음 22:60~62 / 너의 죄 홍약하나(255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 금요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대제사장이야바의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멀찍이 따라오다가 거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뒤따라온 것입니다. ‘멀찍이는’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안전선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그어 놓은 선 밖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하면서(막 14:71) 부인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 앞에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고 계시던 주님이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겁먹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눈길, 사랑이 담긴 그 말없는 눈길이 베드로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말씀이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사나이가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야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온 존재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만들고, 그럼에도 그냥 쏟아부어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통곡하게 하고 주님께 항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온전하게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8~9 / 만세 반석 열리니(494장)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40일을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헛된 일이 아니었고 패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맙시다. 무슨 공헌, 도움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그렇게 살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죄를 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기로 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맙시다. 무슨 순교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죽음까지도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라고 하실 때, 내 생명 거두어 가실 때, “알았어요, 주님. 이제 부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날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묵상한 구절들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25~5:2 /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182장)

부활의 아침입니다.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지고 무능력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시고(속량,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 내기 위해(구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하나님 나라에서 죄 값은 사망으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움아매고 있던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이 순간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권세들이 손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래는 죄인의 관계(롬 5:8), 원수의 관계(롬 5:10)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화평한 관계로 회복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관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정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2절의 말씀처럼 이제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청와대에 초청되어서 대통령 영광 보는 것, 유명인사와 만나서 그의 영광 보는 것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볼 수 있는 멋진 삶이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의 기도

부활의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 : _____